

공공 체육시설은 동호회 전유물?

광주 학교 체육관 등 배드민턴·축구 회원들 사실상 독차지

인근 주민들 소외 불만

광주시 각 자치구와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이 늘고 있지만 일부 동호회가 선점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정작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드민턴과 배구, 축구 등 운동 동호회들이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설을 독차지하다시피 해 정작 인근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광주시와 교육청이 밝힌 기준 체육시설 개방 현황(2011년 12월 기준) 등에 따르면 전체 학교 305개교 중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218개교(84.5%)였으며,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46개교(15%)에 불과했다. 또 각 구별로 근린공원 등에 체육시설을 설치, 현재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곳은 50여개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는 증가하지만 시설은 부족한 상태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정작 인근 주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사용을 놓고 동호회 간 '로비전'까지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모(47·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는 "아무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다지만 주민이 고루 사용해야 할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체육관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시설이 크게 부족한 잔디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두달 전 예약을 해도 구하기 어렵다. 광주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축구 클럽 수만 600여개에 달하지만 근린공원과 학교운동장을 포함해 이용 가능한 구장의 수는 10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유료(2시간에 1만5960원)로 운영되는 광주시 북구의 한 잔디구장은 기존 축구동호회를 중심으로 실재없이 운영되고, 토요일의 경우 오후에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나 단체와 주민들의 밀려드는 사용 신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정모(52·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근린공원의 잔디구장이 축구동호회의 전유물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려해도 학교운동장을 포함해 이용 가능한 구장의 수는 10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도자기만들기 체험

4일 전남대에서 시작된 '국제여름학교' 1기 참가생들이 광주 남구 입촌동 도예문화센터에서 도자기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중학교 교과별 석차 없어진다

'수우미양가' 대신 'A-B-C-D-E'로 표시

현재 1학기 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달 받아 볼 성적표에는 기존 '수-우-미-양-가' 대신 'A-B-C-D-E'가 표시된다. 또 교과목별 석차는 없어지고 원점이 운영되고, 토·일요일의 경우 오후 새 성적표기 방식은 올해는 중 1에만 적용되며 내년 중 2, 2014년 중 3까지 확대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교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올 1학기 말부터 1학년 학업 성적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고 4일 밝혔다.

중학교는 이미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성취도를 '수-우-미-양-가'로 부여하는 성취평가제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전면적인 성취평가제가 시행된다.

대부분 교과목의 성취도가 'A-B-C-D-E'로 표기되지만 체육·예술은 현행 '우수-보통-미흡'을 'A-B-C'의 3단계로 변경한다. 선택 과목(환경·

보건·진로와 직업)은 현행 '이수' 여부 표기를 'P'로 기재한다.

단계별 성취도가 의미하는 성취율은 A가 90% 이상, B 90% 미만~80% 이상, C 80% 미만~70% 이상, D 70% 미만~60% 이상, E 60% 미만~40% 이상이다. 최소 학업 성취 기준(성취율 40% 미만)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F'로 평가하는 '재수제'는 내년에 40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연말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특성학교와 마이스터고의 1학년 전문교과도 이번 학기부터 상대 평가에 기반을 둔 '석차등급' 표기를 삭제하고 성취도(A-B-C-D-E)를 기재한다.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는 현행대로 병기한다.

고등학교(보통교과)의 경우 올해부터 2년 간 100개 고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 내신은 A-B-C-D-E-F의 6단계 성취도 표시로 바뀐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4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20시 50분 달짐 06시 49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비	23/27°C
목포	흐리고비	22/26°C
여수	흐리고비	22/25°C
나주	흐리고비	22/27°C
완도	흐리고비	22/27°C
구례	흐리고비	22/27°C
강진	흐리고비	22/27°C
해남	흐리고비	22/27°C
장흥	흐리고비	22/27°C
순천	흐리고비	21/26°C
영광	흐리고비	22/27°C
진도	흐리고비	22/27°C
전주	흐리고비	22/26°C
군산	흐리고비	22/25°C
남원	흐리고비	22/26°C
혁신도	흐리고비	22/26°C

바다	중랑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경고	보통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목포 03:17	08:3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15:17	20:31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여수 10:02	04:01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22:41	16:00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6	22/29	21/30	21/30	22/29	23/28

광주교육청, 2013학년도 고교 배정 수정 공고

광주시교육청은 4일 선(先)지원한 고교도 후(後)지원에서 다시 지원(본보 7월2일자 6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공고했다.

수정안에서 시 교육청은 "모든 지원학교는 중복될 수 없다. 단, '배정 가능고교'에서 선택한 선지원 학교는 후지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지원 원서의 선지원란에 각각 다른 고교 2개교를 쓴 뒤에도 해당 2개 학교를 후지원(5개교 지원가능)에

서 중복해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3월말 공고로 통해 선지원한 학교 2곳은 후지원에서는 쓸 수 없다고 묶어 놓은 것을 풀어주는 조치로, 입지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는 반대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고교배정 방식은 올해 중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고교배정에서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고교별로 고루 배치하는 '평준화 방식'을 도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문의 없는 응급실

내달 과태료 물린다

다들 달부터는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반드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on-call)' 체계가 도입되며, 만약 전문의 진료에 이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좁혀진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관련 규정 아래 삭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턴 또는 1~2년차의 낮은 연차 레지던트들이 응급실에서 처음 환자를 맞았고, 상황에 따라 3~4년차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순서대로 호출하는 형태로 응급 진료가 진행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문의만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필뉴스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할인 봉사 OFF SALE** **30%**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지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